

# ‘느낌표 현상’에 대한 단상

박경수 | 〈노빈손〉 시리즈 지은이

1위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 2위 《봉순이 언니》, 3위 《연탄길》, 4위 《팽이부리 말 아이들》. 교보문고의 2월 셋째주 종합베스트셀러 순위다. MBC의 〈!느낌표〉에 소개된 책들이 1, 2, 4위에 올랐고 3위 역시 KBS 〈TV, 책을 말하다〉에서 소개된 책이다. 어떤 인터넷 서점에서는 세권을 묶어 ‘느낌표 세트’까지 등장했다.

문득 궁금해진다. 독자들은 왜 그렇게 앞다퉀 그 책들을 살까? 세계적으로 소문난 ‘독서 후진국’의 오명은 단지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요컨대,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골똘같은데 단지 뭘 읽어야 할지 몰라서 여태 망설이고 있었던 걸까?

어쨌거나 좋은 일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TV의 대중적 권위와 시청자들의 호응이 빛은 흐릿한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그뿐이다. 하지만 내 코가 유별난 탓일까? 대형서점의 매출을 20%나 끌어올렸다는 이 ‘느낌표 현상’에서 나는 우리나라 독자들의 문제점인 ‘수동적·강박적 책읽기’의 냄새를 맡는다.

수동적 책읽기는 내 나름이 아닌 남 나름의 독서를 말한다. 주체적인 기준 없이 그저 ‘남이

읽으니 나도 읽는’ 식의 문화적 군중심리. 출판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른바 ‘사재기’는 바로 이 같은 현상을 토양으로 삼고 있다. 어떻게든 베스트셀러 목록에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다. 내용보다 판매량에 더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우르르 몰려들 테니까.

남 따라 서점 가는 행동의 심리적 근원은 다름 아닌 강박이다. 독서에 대한 혹은 교양에 대한 강박.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스키 타는 시간을 책읽기에 할애할 의사는 없으면서 독서에 대한 당위적 강박만은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 교양인이 되고 싶은 욕구는 있되 거기에 투자할 생각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TV의 독서 캠페인은 얼마나 유용한 정보인가? 읽는다는 행위가 주는 위안. 그리고 ‘나도 읽었다’는 사실이 주는 포만감. 더더군다나 공중파 방송이 보장하는 당대의 양서임에라.

이런 ‘야박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출판 정책이나 인프라 같은 제도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알고 있다. 4백개에 불과한 공공도서관, 허버드대 만도 못한 국가의 도서관 예산, 도서관 1개당 주민 숫자 OECD 가입국 최하위 등등. 오죽하면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모토로 내건 시민단체가 존재할까? 하지만 국가나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의 엉터리 정치문화에서 유권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듯이, 출판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대해서도 비판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방송이 좋은 책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독서를 장려하는 건 좋은 일이다. 출판계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 역시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걱정스러운 건 저 ‘느낌표 현상’이 우리나라 독자들의 좋지 못한 습성을 더욱 고착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그게 출판계 전체에 하나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훗날 이것이 한낱 기우로 판명된다면,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나는 출판인으로서 몹시 행복할 것 같다. ■

통권 제319호 | 2002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